

魏의 對韓政策과 崎離營 전투

鄭載潤

- I. 머리말
- II. 崎離營 전투에 대한 재검토
- III. 魏의 漢郡縣 개입과 崎離營 전투
- IV. 帶方郡의 활로 모색과 百濟의 성장
- V. 맺음말

I. 머리말

기리영¹⁾ 전투는 3세기 중반 韓 세력과 중국 군현과의 충돌을 말한다. 이 충돌은 관할권의 변경에서 비롯됐으며, 魏²⁾의 적극적인 한반도 개입을 뜻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오히려 漢 군현은 쇠퇴하여, 313년과 314년 낙랑과 대방군이 한반도에서 축출되었다. 반대로 백제는 近肖古王代에 대방군 지역에서 고구려와 패권을 다툴 정도로 점차 성장하였다. 따라서 기리영 전투는 당시 魏의 韓 세력에 대한 개입 의도와 백제의 성장을 살펴보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기리영 전투는 마한 세력의 쇠퇴와 반대로 백제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살필 수 있는 사건으로 주목받았다.³⁾ 그 결과 전투의 발발 요인과 주체 세력 등에 관한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⁴⁾ 하지만 정작 중요한 魏의 對韓政策의 의도와 그 변화, 그리고 기리영 전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소 미진한 감이 없지 않다. 이는 魏가 韓 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한 배경과 이후 다시 소극적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안될 상황을 간과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기리영 전투의 쟁점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자 한다. 이

1) 지금의 황해도 平山郡 麟山面 麒麟里로 비정된다(李丙燾, 『三韓問題의 新考察』, 『震檀學報』 5, 1936, 116쪽).

2) 이하 魏는 3세기에 있었던 曹魏를 지칭한다.

3) 이에 대한 대표적인 논문은 다음과 같다.

池内宏, 1928, 『曹魏의 東方經略』,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12; 1951, 『滿鮮史研究』 上世, 祖國社.

池内宏, 1929, 『公孫氏の 帶方郡設置と 曹魏의 樂浪·帶方二郡』, 『史苑』 2-6; 1951, 위의 책.

成合信之, 1974, 『三韓雜考-魏志, 韓傳にみえる 韓의 帶方郡攻撃事件をめぐって』, 『學習院史學』 11.

千寬宇, 1979, 『馬韓諸國의 位置試論』, 『東洋學』 9; 1989, 『古朝鮮史·三韓史研究』, 一潮閣.

武田幸男, 1996, 『三韓社會における 辰王と 臣智』 下, 『朝鮮文化研究』 3.

윤용구, 1998, 『『三國志』 韓傳 對外關係記事에 대한 一檢討』, 『馬韓史 研究』, 忠南大.

李道學, 『새로운 摸索을 위한 點檢, 目支國 研究의 現段階』, 위의 책.

김수태, 『3세기 중·후반 백제의 발전과 馬韓』, 위의 책.

尹龍九, 1999, 『三韓의 對中交渉과 그 性格』, 『國史館論叢』 85.

임기환, 2000, 『3세기-4세기초 위(魏)·진(晉)의 동방 정책』, 『역사와 현실』 36.

권오영, 2001, 『백제국(百濟國)에서 백제(百濟)로의 전환』, 『역사와 현실』 40.

4) 이에 대한 연구사 검토는 다음 장에서 하고자 한다.

어 이를 바탕으로 위가 한반도에 개입하였던 상황과 기리영 전투의 발발 요인에 대하여, 위와 군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위의 적극적인 對韓政策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 결과 대방군이 백제와 결합한 요인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이러한 백제와 대방군의 결합이 기리영 전투의 발발 요인인 관할권 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밝혀내었으면 한다. 이를 통하여 3세기 중·후반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II. 崎離營 전투에 대한 재검토

246년 벌어진 기리영 전투는 위의 주체 세력과 발발 요인,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이 매우 다양하다. 이는 당시 한반도의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三國志』 東夷傳 韓條에 나오는 78개 국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여러 소국의 할거 시대로 보거나, 『三國史記』의 기록과 같이 이미 백제가 마한 지역을 평정하였던 것으로 파악하거나, 이 양자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이미 상당할 정도로 백제국이 성장하였다는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전투 못지 않게 견해 또한 다양한 입장이 개진되어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본장에서는 이에 대한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그 해결점을 찾고자 한다.

- A. 部從事 吳林은 낙랑이 본래 韓國을 통치했다는 이유로 辰韓 8국을 분할하여 낙랑에 주었다. (그런데) 통역하는 관리가 이를 전하는 데 틀림이 있어 臣智가 韓의 분노를 격발시켜 [臣憤(憤)沾(沾)韓이 분노하여] 대방군 기리영을 공격하였다. 이 때 태수 弓遵과 낙랑태수 劉茂는 군사를 일으켜 이들을 토벌하였으나 준은 전사하고 2군은 마침내 한을 멸하였다.⁵⁾

위의 기사는 기리영 전투에 대하여 전하고 있는 중국 측 사료이다. 이에 따르면 부중사 오림이 진한 8국을 분할하여 낙랑에 주려 하였으나, 통역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신지가 한(인)의 분노를 격발시켜 대방군을 공격하였다 한다. 위의 기사에서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진한 8국을 분할하려 하였는데, 이에 반발한 세력은 진한이 아니라 韓 세력이라는 부분이다.⁶⁾ 즉 진한 8국의 문제에 韓 세력이 반발하였다는 점이 이상한 것이다. 이에 진한 8국을 마한 8국의 誤記로 간주하거나⁷⁾ 통역 과정에서 ‘진한 8국’을 ‘마한 8국’으로 誤譯하였다고 보기도 한다.⁸⁾

하지만 대상국의 오기 내지는 통역 과정에서의 대상국 오역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약하다. 오히려 부중사 오림이 통역 과정에서 위의 對韓政策을 韓의 토착 세력들에게 충분하게 이해시키지 못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싶다.⁹⁾ 사실

5) 部從事吳林 以樂浪本統韓國 分割辰韓八國 以與樂浪 吏譯傳有異同 臣智激韓忿[臣憤(憤)沾(沾)韓忿] 攻帶方郡崎離營 時太守弓遵 樂浪太守劉茂 興兵伐之 遵戰死 二郡遂滅韓(『三國志』 30 東夷傳 韓條)

6) 한은 일반적으로 마한을 지칭한다.

7) 千寬宇, 1989, 앞의 책, 241쪽 주 24.

8) 李道學, 1998, 앞의 논문, 127쪽.

9) 이러한 점은 현재의 외교 정책에서도 종종 보이고 있다. 해당 국가가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때는 애매한 표현으로 상대 국가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분쟁의 소지 등을 중

전쟁이 발발할 정도로 韓 세력들이 위의 정책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음을 볼 때, 위 측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부중사 오립을 파견할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안이 워낙 미묘하다 보니 오립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양자간에 오해가 생긴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낙랑에 분할하려는 대상은 원 사료대로 진한 8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들 나라가 왜 대방에서 낙랑으로 관할권이 변경되는 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臣智激韓忿’이라는 자구이다. 이 자구는 현재 널리 통용되고 있는 明代 汲古閣本을 따른 것이다. 이 자구를 따르면 ‘신지가 한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신지는 격하고 한은 분했다’, ‘신지와 한인의 분을 격하게 하였다’, ‘한 신지가 격분하였다’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¹⁰⁾ 이러한 해석 중 한문 구조로 보아 첫 번째 해석만 타당할 듯하다.¹¹⁾ 나머지는 모두 신지와 한이라는 주체에 맞추어 해석하였기 때문에 다소 어색하다. 첫 번째 해석 또한 아주 자연스럽게는 않지만 신지가 한인들의 분노를 조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가 주동이 되어 대방군을 공격한 상황을 기술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본다면 기리영 공격은 관할권 조정뿐만 아니라 다분히 신지의 의도도 그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宋代 紹興本에 ‘臣憤沾韓忿’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마한의 ‘신분고(활)국이 노하여’로 보는 견해가 있다.¹²⁾ 이는 해석만 놓고 보면 앞의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다. 하지만 ‘憤沾’을 ‘憤沾’로 보는 것 역시 신분고국을 미리 상정하고서 억지로 맞추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 듯 따르기 힘들다. 그런데 최근 宋 高宗 紹興 31(1161)년 鄭樵에 의해 쓰여진 『通志』¹³⁾에 이 구절이 ‘臣憤沾韓忿’으로 기재되었음을 찾아내어, 신분고(활)국을 기리영 전투의 주체로 보는 견해가 더욱 보강되었다. 이 견해에 따르면 ‘臣智激韓忿’이란 자구는 명대 이후의 간본에만 보이는데, 간본의 특성 상 한번 잘못된 것이 되풀이되는 경향을 주목한다면 오히려 이전 시기인 송대의 간본이 원 사료에 가깝다 한다.¹⁴⁾ 이러한 지적은 경청할 만하지만 보다 신중해야 할 문제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일단 기존의 통행본 자구를 따르고자 한다.

먼저 이른 시기의 간본이 바로 원 사료에 가까운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된다. 즉 명대에 『삼국지』를 간행할 때에는 소흥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판본이 실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명대의 간행자가 이 구절을 다르게 하였다면 잘못하였거

분히 고려한다. 하나 하나의 자구까지 검토하는 것을 이를 최소한 막고자 하는 외교 관계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그 시기가 오래되었다고 하나 통역이 대상국을 잘못 전달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된다.

10) 李道學, 1998, 앞의 논문, 127-128쪽.

11) 이는 ‘激’을 타동사로 볼 경우에 타당하다. 나머지는 타동사에 목적어가 없다는 점에서 다소 궁색한 해석이 된다.

12) 末松保和, 1954, 『新羅建國考』,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518-519쪽 주 65. 成合信之, 1974, 앞의 논문, 23쪽. 井上幹夫, 1978, 『魏志東夷傳にみえる辰王について』, 『竹内理三博士古稀記念 續律令國家と貴族社會』, 623쪽. 千寛宇, 1989, 앞의 책, 417-418쪽. 武田幸男, 1996, 앞의 논문, 17쪽. 윤용구, 1998, 앞의 논문, 98-99쪽. 尹龍九, 1999, 앞의 논문, 101-107쪽. 임기환, 2000, 앞의 논문, 17-23쪽. 권오영, 2001, 앞의 논문, 32-35쪽.

13) 『通志』의 가장 이른 각본은 1321년 간행된 摹印元大德本이며, 商務印書館의 万有文庫本이 현재 통용되고 있다.

14) 尹龍九, 1999, 앞의 논문, 101-107쪽.

나 아니면 다른 판본을 보고 따랐을 것이다. 그런데 신지를 기리영 주체로 본 것을 감안하면 오류로 볼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명대 급고각본의 간행 당시에 여러 판본이 실제하였을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앞서의 지적처럼 간본이 잘못된다면 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간행 작업을 하였을 때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통행본이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은 이러한 오류를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미묘한 자구를 명대의 오류로 보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즉 급고각본의 간행시 여러 판본이 있었고 이를 대조하였다면, 이를 교열한 자는 소흥본 보다는 다른 판본이 옳다고 생각하여 다소 문제가 있지만 이를 취하였다고 믿어진다.¹⁵⁾

설사 송본이 옳다고 해도 송본에서는 마한의 소국명이 ‘臣瀆沽國’으로 기록되어, 기리영 전투의 주체인 ‘臣幘沽韓’과 차이가 난다. 물론 양자의 유사성 때문에 이를 신분고국으로 보고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먼저 표기가 차이나는 것은 송대에 간행자가 유사성 때문에 표기를 잘못하였거나 아니면 신분활국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이 구절이 신분활국과 관련이 없다면 애초의 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결국 간행자의 오류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송본의 문제점은 지적될 수 있겠다.

다음으로 『通志』의 경우는 마한의 소국과 전투의 주체 세력이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해석이 자연스럽고, 주체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언 듯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는 『通志』의 찬술자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그가 인식한 데로 수정하였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지, 이 구절이 원본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여전히 이 구절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였으며, 명대에 간행할 때 여러 판본을 참조하여 ‘臣智激韓忿’이란 구절을 취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추정이 틀리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한인의 분노를 조장시킨 주체로 신지를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신지는 目支國 辰王과 연결되어 더욱 복잡하다. 즉 기리영 전투의 주체를 당시 마한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목지국 진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¹⁶⁾ 이에 따르면 백제국도 목지국의 영도력에 호응하여 군대를 동원해 낙랑군의 변민을 습취하였다 한다.¹⁷⁾ 그러나 이미 진왕이 출현한 상태에서 굳이 신지라고 표현했다는 사실이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은 음미해볼 만하다.¹⁸⁾ 또한 목지국의 위치 비정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긴 하지만,¹⁹⁾ 대체로 광역적인 아산만 일대로 보

15) 실제 송본은 避徽하느라 오타자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16) 盧重國, 1987, 「馬韓의 成立과 變遷」, 『馬韓·百濟文化』 10, 圓光大, 37쪽.

俞元載, 1994, 「晉書의 馬韓과 百濟」, 『韓國上古史學報』 17, 147쪽.

17) 盧重國, 1990, 「目支國에 대한 一考察」, 『百濟論叢』 2, 19쪽.

18) 김수태, 1998, 「3세기 중·후반 백제의 발전과 馬韓」, 『馬韓史 研究』, 191-192쪽.

19) 목지국의 위치 비정에 대해서는 전북 익산설(丁若鏞, 「馬韓考」, 『疆域考』. 申景濬, 『疆界誌』), 충남 공주설(申采浩, 1987, 『丹齋 申采浩全集』 上, 105쪽. 金聖昊, 1982, 『沸流百濟와 日本의 國家起源』, 121쪽), 백제의 도성설(鄭寅普, 1946, 『朝鮮史研究』 上, 116쪽), 경기 광주설(安在鴻, 1947, 『朝鮮上古史鑑』 上, 272쪽), 한 군현에 가까운 북방의 마한설(三上次男, 1966, 『古代東北 아시아史研究』, 105쪽), 충남 직산설(李丙燾, 1976, 『韓國古代史研究』, 246-248쪽), 경기 인천설(千寬宇, 1989, 앞의 책, 368-371쪽), 충남 예산설(金貞培, 1986, 『韓國古代的 國家起源과 形成』, 299-300쪽), 충남 아산설(李道學, 1998, 앞의 논문, 121쪽), 아산만 일대설(李賢惠, 1997, 「3世紀 馬韓과 百濟」, 『百濟의 中央과 地方』, 忠南大, 13-14쪽), 충남 천안설(權五榮, 1996,

는 데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한 군현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던 목지국이 위의 정책에 반발하여 공격의 주체 세력이 되었다는 보는 것은 다소 어색하다.²⁰⁾ 이러한 의문 때문에 백제국이 중심이 되어 목지국과 공동 대응하였거나,²¹⁾ 백제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해 중국 군현이 목지국과 연결되어 백제에 공동 대응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²²⁾ 양자의 목지국에 대한 인식이 다르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백제가 기리영 전투에 관여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며, 이는 바로 다음의 사료에서도 확인된다.

B. 가을 8월에 위의 幽州刺史 卍丘儉이 낙랑태수 劉茂와 朔方太守 王遵과 더불어 고구려를 정벌하였다. (고이)왕은 이 틈을 타서 左將인 眞忠을 보내 낙랑의 변경 민가를 습격하여 빼앗았다. 유무가 이를 듣고 노하자 왕은 침략을 받게될 것을 두려워하여 그 백성들을 돌려주었다(『三國史記』 24 百濟本紀 2 古尒王 13年條).

위의 사료는 『삼국지』 동이전의 기사와 비교하여 군현의 태수 이름과 그 시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기리영 전투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같이 고이왕대의 기사를 신뢰하면 기리영 전투의 주체는 백제의 고이왕이 된다.²³⁾ 이에 대하여 만일 백제가 주체였다면 왜 중국 측의 사료에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데에 의문을 표시하고, 『삼국사기』의 기록과 같이 그 참여의 정도가 낮았기 때문으로 보기도 한다.²⁴⁾ 이러한 주체 세력의 문제는 결국 기리영 전투의 결과 목지국이나 신분활국²⁵⁾ 등은 쇠퇴한 반면에 백제는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인식과 밀접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앞의 사료 A에 보이는 것처럼 한을 멸망시켰다는 기사에 주목하면 이와 관련된 주체 세력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백제는 참여 정도가 미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기리영 전투의 결과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²⁶⁾

이를 위해선 먼저 백제보다 신분활국을 기리영 전투의 주체로 인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기로 하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분활국이 관여한 것처럼 보이는 판본이 있음으로 해서 최근에 더욱 보강되었지만, 원래 기리영 전투의 주체로 신분활국에 주목하게 된 것은 목지국 진왕과의 관련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辰王治月支國 臣智或加優呼 臣雲

『三韓의 ‘國’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2쪽), 직산에서 나주로 이동하였다고 보는 설(崔夢龍, 1990, 「馬韓-日支國研究의 諸問題」, 『百濟論叢』 2, 274-275쪽) 등 매우 다양한 견해가 있다.

20) 물론 목지국 진왕이 마한의 소국들은 주도하는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목지국 진왕이 실질적으로 한을 통제할 수 있는 영도력을 가졌다고 보는 데는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견해가 많기 때문에 선 듯 받아들일 수 없다.

21) 김수태, 1998, 앞의 논문, 194쪽.

22) 권오영, 1996, 앞의 책, 216쪽. 권오영은 최근 기리영 전투의 주체를 백제로 보는 입장을 철회하였다(앞의 논문, 2001, 34-35쪽).

23) 千寬宇, 1989, 앞의 책, 242쪽. 李丙燾, 1959, 『韓國史』 고대편, 347-349쪽. 李基東, 1990, 「百濟國의 成長과 馬韓 併合」, 『百濟論叢』 2, 9쪽. 李基白, 1996, 「3세기 東아시아 諸國의 政治的 發展」, 『韓國古代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46쪽. 李賢惠, 1997, 앞의 논문, 18-21쪽. 김수태, 1998, 앞의 논문, 194쪽.

24) 윤용구, 1998, 앞의 논문, 98쪽.

25) 신분고국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일단 통행본을 따라 신분활국으로 하고자 한다.

26) 이에 대해서는 제 4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遣支報安邪跬支瀆臣離兒不例拘邪秦支廉之號”란 『삼국지』 기사²⁷⁾에서 출발한다. 즉 월(목)지국 다음에 나오는 우대 호칭을 진왕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삼국지』 기사를 “신지에게는 간혹 우대하는 호칭인 臣雲遣之報 安邪跬支 瀆臣離兒不例 狗邪秦支廉의 호칭을 더하기도 한다”라고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에서 ‘瀆臣’을 ‘臣瀆’으로 도치하면,²⁸⁾ 신분(활국)의 ‘離兒不例’라는 호칭을 더했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⁹⁾ 그런데 이와 같이 구두점을 끊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호칭은 별 문제가 없지만, 신분(활국)은 廉斯國 내지는 臣離國 등으로 보기도 하여 논란이 있다. 이는 무리하게 國名을 도치함으로써 신분(활국)에 억지로 맞추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해석 자체를 달리하는 견해도 있다. 즉 구두점을 “臣雲·遣支報 安邪·跬支瀆 臣離兒·不例·拘邪秦支廉之號”로 끊고 있는 것이다. 이 해석에 따르면 支報·支瀆·支廉을 동일어의 別寫로 이해하고, 신분(활국)이 아닌 卓(喙)國의 支瀆으로 보고 있다.³⁰⁾ 따라서 이의 타당성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瀆臣’이 ‘臣瀆’의 도치라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만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³¹⁾

이와 같이 이 견해가 불안하지만 주목받게 된 것은 『삼국지』 한전에 백제국 바로 앞에 7번째 국가로 신분(활국)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즉 이의 國名 표기가 임진강 방면에서 남하하여 북으로부터 남쪽 방향 순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한다면,³²⁾ 신분(활국)은 백제의 북쪽에 있는 국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³³⁾ 이러한 경우 신분(활국)은 마한 제국 중 북단에 있었기 때문에 군현을 상대로 한 전투를 주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분(활국)에 관련된 여러 해석은 추측일 뿐이지 매우 불안하다. 따라서 기리영 전투와 진왕과의 관련을 분리시켜서 신분(활국)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실사 신분(활국)과 목지국과의 특수한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견해는 기리영 전투 이후 급성장한 백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 듯하다. 사실 백제의 시조인 온조의 건국 설화를 살펴보면 조선을 찬탈한 衛滿의 상황과 비슷하다. 즉 “왕이 처음 강을 건너와서 발붙일 곳이 없었으나 내가 동북 일백리의 땅을 할양하여 거기에 살도록 하였다”라는 기사³⁴⁾는 “(위만이) 서쪽 변방에 거주하도록 해주면 중국의

27) 『三國志』 30 東夷傳 韓條.

28) 李丙燾, 「三韓問題의 新考察」, 『震檀學報』 4, 38쪽.

29) 成合信之, 1974, 앞의 논문, 13-14쪽. 氏는 栗原朋信의 연구를 보장하여, 한국의 유력한 세력이 진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그가 특별한 지위에 있었다는 증거로 보았다. 武田幸男은 이 견해를 더욱 발전시켜 진왕은 북쪽의 신분(활국), 남쪽의 臣雲新國과 가야 지역의 安邪國, 狗邪國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손씨 정권의 대방군 지원 아래 대외 창구의 대표자로 등장하였다고 본다. 또한 기리영 전투는 위가 공손씨 정권을 타도하고 한국을 직접 지배하려하자 이에 불안을 느낀 신분(활국)과 진왕 등이 반발하여 벌어졌으며, 그 결과 이들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쇠퇴하였다는 입장이다(1996, 앞의 논문, 4-19쪽).

30) 全榮來, 1985, 「百濟南方境域의 變遷」, 『千寬宇先生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 139-140쪽.

31) 尹龍九, 1999, 앞의 논문, 105-106쪽.

32) 千寬宇, 1989, 앞의 책, 375-376쪽

33) 이를 기록 순서에 따라 優休牟涿國(강원도 춘천으로 추정)과 백제국 사이의 경기도 가평으로 비정한 견해(天寬宇, 1989, 앞의 책, 417-418쪽)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를 비정한다면 백제의 북부 지역인 지금의 과주 육계토성이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즉 기록 순서를 고려하고, ‘신분(활)’의 ‘분’자에서 瀆은 물가를 뜻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임진강가에 있는 육계토성은 이에 가장 유력한 후보 중의 하나라고 억측해본다.

망명자를 거두어 조선의 藩屏이 되겠다고 준을 설득하였다. 준은 그를 믿고 사랑하여 博士에 임명하고 圭를 하사하며, 백리의 땅을 봉해주어 서쪽 변경을 지키게 하였다”라는 기사³⁵⁾와 상황이 유사한 것이다. 이들이 각각 고조선과 마한으로부터 백리의 땅을 할양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이주민들의 거주를 현실적으로 용인한 것이며, 이들을 통해 이주민들의 소요를 막으려는 의도로 보아도 별 무리가 없을 듯하다. 그렇다면 온조가 정착한 백제 지역은 바로 마한의 북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틀리지 않고 신분활국이 백제의 북쪽 지역에 위치한다면, 신분활국 또한 마한 세력이기보다는 이주민 세력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³⁶⁾ 그렇다면 이들은 백제와 인접하였고 이주민 세력이기 때문에, 진왕보다는 어떤 식으로든지 백제와 먼지 관련을 맺었다고 생각된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과연 백제라는 소국이 기리영 전투 이후 마한에서 우월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신분활국과 진왕이 쇠퇴함에 따라 비로소 부상하였을까 하는 의문이다. 즉 백제의 도성으로 추정되는 風納土城에는 이른 시기의 유물이 출토되어 다른 소국보다 우월하였음이 확인되기³⁷⁾ 때문에, 신분활국을 경기 북부의 중심 세력으로 보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또한 백제가 갑자기 어떠한 계기에 의해 급부상하였다는 인식보다는 이전부터 꾸준히 성장한 백제의 역량에 주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백제는 한강 유역에서 성장을 하여 점차 마한 내에서 주도권을 장악하였고, 기리영 전투는 그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기리영 전투를 이제까지 본 것처럼 마한 세력의 쇠퇴라는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백제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III. 魏의 漢郡縣 개입과 崎離營 전투

그러면 위의 관할권 조정을 韓 세력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34) 『三國史記』 23 百濟本紀 1 始祖溫祚王 24年條.

35) 『三國志』 30 東夷傳 韓條 所引 魏略

36) 백제의 유력한 지배 세력인 眞·解氏 등은 북부 출신으로 나오고 있다. 이들 중 해씨는 온조와 같이 부여 출신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다. 따라서 억측해보면 해씨는 온조와 비슷한 시기에 남하한 이주민 세력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들은 백제의 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주한 이후 점차 백제의 지배 세력으로 편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경기 북부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육계토성, 자작리 등의 대규모 유적은 이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따라서 신분활국의 문제는 백제의 북부 세력과 관련하여 고찰하여 할 문제라고 생각되며, 이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다루고자 한다.

37) 백제의 왕성으로 보이는 풍납토성은 총길이 3.5km에 폭 40m, 높이 10m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는 늦어도 3세기를 전후한 시기[뒤에 발간된 보고서에서는 2세기 전반에서 3세기 중반 이전으로 보고 있다(2001. 6, 『風納土城』 I, 국립문화재연구소, 591쪽)에 축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申熙權, 2001. 5, 『風納土城의 築造技法과 性格에 대하여』, 『風納土城의 發掘과 그 成果』, 한밭大, 72-76쪽). 이와 함께 유구는 기원전 1세기에서 5세기 후반 사이에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여(2001. 6, 앞의책, 593쪽), 이른 시기부터 이 지역이 중심지 역할을 하다가 한성 함락 이후 폐기되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풍납토성의 축조 연대에 대하여 의문을 표하기도 하지만 이를 차치하더라도 이른 시기의 유물이 타 지역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이 출토된 것을 볼 때, 백제의 주변에 대한 우월성은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기리영 전투 이전 위의 對韓政策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의 자료는 이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료이다.

C. (후한의) 桓帝와 靈帝 말기에 韓과 濊가 강성하여 군현이 능히 제어하지 못하니 많은 백성들이 韓國으로 흘러 들어갔다. 建安 연간(196-220)에는 公孫康이 屯有縣 이남의 황무지를 나누어 대방군을 만들고, 公孫模와 張敞 등을 보내어 유민들을 수습하여 군사를 일으켜 한과 예를 정벌하였다. 이에 옛 백성들이 차츰 나오고 이후 왜와 한은 드디어 대방에 복속되었다. 景初 연간(237-239)에는 明帝가 몰래 대방태수 劉昕과 낙랑태수 鮮于嗣를 보내어 바다를 건너 두 군을 평정하였다. (그리고) 여러 한국의 臣智에게는 더하여 邑君의 인수를 주고 그 다음에는 邑長을 주었다. 그들의 풍속은 衣幘을 좋아하며 下戶들도 군에 이르러 朝謁할 때는 모두 의책을 빌리며, 스스로 복종하여 印綬와 의책을 한 자가 천여 명이나 된다(『三國志』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韓條).

위의 사료에 따르면 後漢의 통치력이 이완됨에 따라 한과 예가 강성하여 중국 군현이 점차 이들을 제어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제하기 위해 公孫康이 대방군을 설치하였다는 것이다. 대방군의 설치하는 위의 사료에 보이는 것처럼 강성해진 한과 예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즉 낙랑군의 치소(지금의 평양)가 북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 결점을 보완하여 대방현을 승격시킴으로써, 한반도 중부 이남에 있는 한과 왜를 복속시켰던 것으로 볼 수 있다.³⁸⁾

그런데 이에 앞서 공손강의 아버지인 公孫度는 후한의 혼란 상황을 틈 타 189년 요동 지역에 독자적인 정권을 세웠다. 그렇다면 대방군 설치하는 독자적인 정권을 세운 공손씨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기존의 한 군현과는 입장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즉 한과 예의 제어라는 기본적인 목적 외에도 한편으로 자신의 지지 기반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³⁹⁾ 이를 기반으로 공손씨 정권은 238년 위의 司馬懿에게 격과당하기 전까지 魏와 蜀의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진행하여 독자적인 세력을 펼쳐나갔다. 따라서 공손씨 정권 성립기에 漢 군현은 후한이나 이후 등장한 위와 직접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볼 수 없다.⁴⁰⁾ 실제로 공손도는 후한에서 涼茂를 낙랑태수로 임명하였으나 임지로 가는 것을 막고 있다.⁴¹⁾ 이와 같은 사실에서 공손씨 정권의 독자성은 확인된다.

공손씨 정권에 대한 정벌은 중국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⁴²⁾ 당시 중국은 魏·

38) 池內宏, 1951, 앞의 논문, 240쪽.

39) 낙랑도 물론 공손씨 정권의 영향 하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의 지지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낙랑 정권은 수세기에 걸쳐 존재하였기 때문에, 일시에 지배 세력의 성향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비교적 토착 세력의 기반이 약한 대방현을 선택하여 다소 불안한 낙랑을 견제하면서 발흥한 한도 제어하려는 목적에서 대방군의 설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임기환 역시 요동에서 한반도 서북부에 이르는 지역을 직접적인 세력 기반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2000, 앞의 논문, 8쪽). 다만 필자는 낙랑과 대방을 구분짓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0) 李周鉉, 2000, 「魏晉南北朝時代의 東夷校尉」, 東洋史學會 秋季 學術發表會 要旨文, 27-28쪽.

41) 轉爲樂浪太守 公孫度在遼東 擅留茂 不遣之官 然茂終不爲屈(『三國志』 11 涼茂傳)

42) 이하는 大庭 脩, 1996, 「三·四世紀における遼東地域の動向」, 『古代中世における日中關係史の研究』, 同朋舎出版, 41-56쪽 참조.

蜀·위가 할거한 삼국시대였다. 공손씨가 자립할 수 있었던 것도 위가 촉·오와 대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오는 실제로 공손씨 정권과 통하여 위를 견제하고자 하였다. 공손씨 정권은 이러한 양국 간의 대결에서 오에 조공을 하거나 상황이 불리하면 오의 사신을 참하여 위에 보내기도 하였다. 위는 이와 같이 배후에 있는 공손씨의 동향에 매우 촉각을 세웠다. 마침내 이를 평정하고자 景初 원(237)년 幽州刺史 卞丘儉을 파견하였지만 실패하였다. 그런데 마침 촉의 군사를 이끌던 諸葛亮이 죽자 상황은 돌변하였다. 촉의 압력이 둔화되면서 전선에 여유가 생긴 것이다. 이에 촉과의 전투에 참가하였던 정예부대를 사마의가 이끌고 공손씨 정권의 정벌에 성공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위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요동과 한반도 지역은 연동성을 갖는다 할 수 있다. 즉 위가 촉·오와 전쟁을 수행하는 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배후인 이 지역에 관심이 고조되고, 한편으로 여력이 없다면 이 지역은 상대적인 독자성을 갖는다 할 수 있다. 공손씨 정권의 성립과 몰락은 바로 이와 같이 중국 대륙의 동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244년 卞丘儉의 고구려 침입 또한 이와 같은 연동성 속에서 이해된다. 위가 비록 공손씨 정권을 타도하였지만 요동 지역에서 안정을 취한 것은 아니었다. 고구려는 242년 촉이 북벌을 재개함에 따라 긴장 관계가 형성됨 틈을 타서 西安平을 공격하였다.⁴³⁾ 이와 같은 고구려의 행동은 안정적인 후방을 확보하고 촉·오와 전면전을 하려 했던 위의 전략에 차질을 가져왔다. 이에 위는 244-245년에 걸쳐 대대적인 고구려 정벌에 나선 것이다. 이는 배후의 안정적 확보와 무관하지 않으며, 고구려가 선제 공격을 함으로써 위에 실제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점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기리영 전투 또한 위의 적극적인 對韓 지배 정책에서 비롯되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역시 배후 세력의 안정 유지와도 관련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韓과 고구려를 보는 시각은 다르다고 생각된다. 즉 韓은 고구려만큼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절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 점에 대하여 살펴보자.

먼저 위가 韓 세력을 경계하는 시각은 공손씨 정권의 배후 세력으로서의 위협일 것이다. 즉 공손씨 정권이 요동 지역에서 거의 50여 년 동안 독자적인 세력을 가졌고 또한 그에 의해 임명된 태수들이 漢 군현을 관할하였다는 점에서, 만약 이들이 발흥하는 韓 세력과 결탁된다면 후방에서 커다란 후한이 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漢 군현에 대한 경계는 앞의 사료 C에서도 확인된다. 위는 새로 劉昕과 鮮于嗣를 태수로 임명하여 바다를 몰래 건너 군현 지역마저 평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2군이 평정이 어느 시점인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략적인 시기는 추측할 수 있다. 즉 바다를 몰래 건넜다는 사실은 이 때 공손씨 정권이 아직 견제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만약 공손씨 정권이 붕괴되었다면 육로를 통해 정식으로 태수들이 부임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의 사실에서 위는 공손씨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먼저 그 배후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2군을 붕괴시켜, 공손씨가 이 방면으로 도망갈 경우에 대비하였음을 알 수 있다.⁴⁴⁾

이와 같이 2군을 공손씨 정권의 배후 세력으로 인식하였다면 위는 특히 대방군에 주

43) 임기환은 고구려의 서안평 공격을 낙랑군을 통한 고구려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군사 행동으로 보고 있다(앞의 논문, 2000, 16쪽).

44) 大庭 脩, 1996, 앞의 논문, 53쪽.

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즉 대방군은 중앙정부와 별도로 공손씨 정권에 의해 독자적으로 설치된 군이었다는 점에서 지배 세력의 성향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위는 군현의 재편이 바로 공손씨 정권의 잔재를 없앨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 여기고, 이를 추진한 듯하다. 사실 위는 배후 세력의 안정에 우선적인 관심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지배의 문제는 차후였다고 생각된다. 이는 위가 촉·오와의 전쟁에서 동방에 집중할 수 없는 사정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⁴⁵⁾ 따라서 관할권 조정 문제는 당사자인 韓의 통제라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우선적으로 위의 군현에 대한 통제 목적도 중요하였다고 생각된다.

이 점은 기리영 전투의 원인을 제공한 부종사 오림의 직책에서도 확인된다. 즉 부종사라는 직은 幽州刺史의 屬官으로, 郡의 감찰을 담당하였다.⁴⁶⁾ 따라서 오림이 파견된 것은 바로 군 내부의 관할 지역을 조율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듯하며, 이는 州의 관할 지역인 군까지 장악하려는 위의 적극적인 지배 정책으로 이해된다. 사실 둔유현 이남 지역을 대방군이 계속 관할하면서 발흥하는 한 세력과 결탁한다면, 대방군은 그 세력이 커질 것이다. 또한 대방군은 공손씨 정권이 세운 독자적인 군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에 위는 대방군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낙랑이 원래 한을 통치하였다는 구실을 들어 진한 8국을 낙랑에 할당한 것으로 보인다.⁴⁷⁾

이러한 분할 구도는 바로 漢 군현에 대한 재편뿐만 아니라 토착 사회에 대한 견제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였을 것이다. 즉 군현 내부에서 마한을 대방이 관할하고, 진한 8국을 낙랑이 관할함으로써 양자간에 서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더불어 韓 사회도 마한과 진한이라는 대립 구도를 만들으로써 이상적인 견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⁴⁸⁾ 이러한 관할권 변경에 韓 세력이 반발한 것은 온당하다고 여겨진다.⁴⁹⁾

45) 공손씨 정권에 대한 정벌도 속결전으로 진행하였다는 점(金容範, 1986, 『魏晉의 東北關係』, 忠南大學校 碩士論文, 24쪽)에서 이는 확인할 수 있다.

46) 池內宏은 ‘部’를 ‘郡’의 오기로 보고, 오림을 대방대수의 종사관으로 보고 있다(1951, 앞의 논문, 244쪽). 하지만 사료 비판은 명확한 근거에서 출발해야 하므로, 이는 선 듯 따르기가 힘들다. 이에 대해서는 李周鉉(한남대) 선생의 교시가 있었음을 밝혀둔다.

47) 『晉書』 지리지의 보면 낙랑군은 6현을 통괄하며 그 戶數는 3,700이었다. 그리고 대방군은 7현을 통괄하며, 호수는 4900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後漢書』 志 23條에 낙랑군이 18현을 통괄하고, 호수가 61,492였다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호수를 국가가 파악한 수취 대상자로 이해하고, 晋代가 後漢代에 비하여 통제력이 많이 약화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절대적인 비교는 할 수 없지만 대략 晋代의 대방과 낙랑은 後漢代의 낙랑에 비하여 통제력이 많이 약화되었지만, 비슷한 규모로 2군이 균형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약간 대방이 우월하였다고 생각된다. 낙랑이 약화된 것은 중국 내의 혼란이 무엇보다도 크게 작용하였고, 대방군의 설치 후에는 한과 왜를 아우를 정도로 성장한 대방군의 영향이 아닌 듯싶다. 아울러 晋代에 대방과 낙랑이 비슷한 규모로 파악된 것은 魏代에 추진된 균형책과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48) 위의 관할권 변경에 의해 발발한 기리영 전투에 대해서는 마한 사회의 결집을 무너뜨리려는 분열 정책으로 보거나(李基白·李基東, 1982, 『韓國史講座』 古代編, 一潮閣, 135쪽), 백제 중심의 새로운 정치적 발전을 저지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李基白, 1996, 앞의 논문, 46쪽). 이에 반하여 위가 정벌을 통해 동이족 사회에 대하여 시도한 교역 체계의 재편, 특히 진한으로의 육지 교역로 개척 의도로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마한의 경기 북부 토착사회를 분할하고 교역상의 기득권을 배제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발단되었다고 보기도 한다(윤용구, 1998, 앞의 논문, 100-101쪽). 이러한 견해들은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필자는 기리

이러할 경우 낙랑과 진한 8국의 교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당사자는 이의 통로에 해당하는 중부 지역 세력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진한 8국과의 중간 교역 집단이 배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쟁의 발발 요인으로 보는 견해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⁵⁰⁾ 그런데 육로를 통한 진한 8국과의 교통로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진한 12국 중 많은 나라가 낙랑군에 배속된 점을 감안하면 교통로가 단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남한강과 북한강 등 수로를 이용할 수도 있고, 육로를 통한 교역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할 경우 주목되는 곳은 임진강을 끼고 있는 파주 지역과 한강에 있는 서울이다. 그런데 이미 이 지역에서는 백제의 우월성이 확인된다.⁵¹⁾ 따라서 이에 민감한 한강 이북 지역의 세력이 백제국 신지(고이왕)를 중심으로 참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삼국지』 한조에 보이는 ‘신지가 한인을 격분시켰다’라는 구절은 백제국이 위의 관할권 변경 의도에 의구심을 갖고, 한인의 분노를 조장시킨 상황을 표현하지 않았나 사료된다.⁵²⁾

IV. 帶方郡의 활로 모색과 百濟의 성장

위는 공손씨 정권을 타도한 이후 고구려를 정벌하고, 이어 부중사 오림을 파견하여 漢 군현의 관할권을 조정하려 했으나 韓 세력의 반발로 기리영 전투를 벌였다. 앞의 사료 A에 의하면 그 결과 비록 대방태수 준은 전사하였으나 2郡은 드디어 한을 멸망시켰다 한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백제가 이 전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보는 시각은 재고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기리영 전투의 결과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이 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신분활국 내지는 목지국을 기리영 전투의 주체 세력으로 보는 견해는 韓 세력이 漢 군현의 정벌에 의해 멸망당할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당시 마한 내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목지국 진왕의 쇠퇴와 백제

영 전투의 발발을 계속된 위의 배후 세력에 대한 정리 작업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

49) 앞의 사료 A에 보이는 것처럼 전달을 잘못하였다는 표현은 혹시 위가 원래 漢 군현의 재편에 중점을 둔 반면 韓 세력은 이러한 위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점에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 아닌가 억측해본다.

50) 尹龍九, 1999, 앞의 논문, 124쪽.

51) 주 37 참조.

52) 백제와 내륙 교역로 개설이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임기환, 2000, 앞의 논문, 22쪽). 그런데 파주, 연천 지역의 교통로에 주목한 것은 정시 5-6년에 걸친 고구려·예의 토벌 결과 강원도 방면에 대한 교통로가 개척되었다고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기리영 전투의 결과 이 교통로와 인접하고 있던 진한 북부 지역 8국을 마한의 지배로부터 분리하려 했다는 시각에서 비롯된다(成合信之, 1974, 앞의 논문, 23쪽). 이와 같이 강원도 방면의 교통로에 주목한다면 서울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백제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강 지역은 북에서 남하한 세력의 주요한 이동로였음이 확인되기 때문에, 교역로의 개설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진한 8국은 진한 12국 중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강원도 방면의 교통로만 이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즉 교통로를 다양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강을 장악하고 있는 백제가 관할권 변경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의 성장 요인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 듯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목지국과 신분활국을 주도 세력으로 보는 것 또한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이를 전하고 있는 기록이 중국 측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과연 이를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이러한 의문에서 韓那奚 등의 항복이나⁵³⁾ 낙랑 변민의 반환 등은 사실이 과장되었다고 보기도 한다.⁵⁴⁾ 나아가 漢 균현은 마한 사회와 일정한 타협을 하여 백제의 위치를 인정하였다는 견해가 있다.⁵⁵⁾ 사실 구체적인 과장 정도는 알 수 없으나 이후 계속적으로 중국과의 교섭에 마한이라는 국명이 등장하고 있는 사실을 비추어보면, 앞의 사료 A에 보이는 한을 멸망했다는 기사는 과장임에 틀림없다. 더욱이 이 전투에 참여한 백제가 이후 마한의 영도자로 나서고 있는 것을 볼 때,⁵⁶⁾ 漢 균현과 전투에 참가한 당사자간에 일정한 타협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앞의 사료 B에서 엿볼 수 있다. 즉 백제가 낙랑의 백성들을 돌려주었다는 기사에서 서로가 타협한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漢 균현과 계속 전투를 하였다면, 백제 측에서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양자간에는 계속 전투를 하는 것보다 서로 이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생각에서 타협안이 제시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백제에서 낙랑의 변민을 돌려준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위가 고구려의 정벌과 같이 대대적인 공격이 아닌 타협 쪽으로 선회한 것은 위의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좀더 확신이 든다.⁵⁷⁾ 앞서 살펴본 것처럼 韓 세

53) 正始 7(246)년 봄 2월에 유주자사 관구검이 고구려를 토벌하였다. 여름 5월에 濊貊을 토벌하여 모두 격파하니 韓那奚 등 수십 국이 각기 종족과 부락을 거느리고 항복하였다(『三國志』 4, 齊王方紀條). 위의 기사에 대해서는 관구검이 고구려를 정벌한 시기가 정시 5·6년이기 때문에, 한나해 등이 기리영 전투의 결과 정시 7년에 항복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池內宏, 1951, 앞의 논문, 246-247쪽). 하지만 이는 고구려의 정벌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고구려와 관련을 시켜야지, 한과의 충돌인 기리영 전투 때 비로소 항복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다분히 한을 멸망시켰다는 앞의 사료 A의 기사를 염두해 두고, 한과 관련시키려는 무리한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실제 표기 방식이나 사료 상에서 전적으로 한위 분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尹龍九, 1999, 앞의 논문, 107쪽). 따라서 이 기사에 대한 검토는 고구려의 정벌 등 전체적인 위의 동방 경략과 관련하여 볼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54) 文安植은 중국 측에서는 華夷觀에 의해 ‘降’으로 표기하지만 『삼국사기』에는 ‘朝貢’으로 표시하고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양자의 입장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2000, 『百濟의 領域擴張과 邊方勢力의 推移』, 東國大 博士學位論文, 61-63쪽).

55) 김수태, 1998, 앞의 논문, 194-195쪽.

56) 진과의 교섭 주체로 마한이 등장한 시기는 277-290년 사이이다. 이 때 그 실체에 대해서는 百濟國, 新彌諸國, 乾馬國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필자는 이 가운데 백제가 마한이라는 명칭으로 교섭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는 입장을 따른다. 백제가 계속 마한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유용성의 차원에서 이해되기 때문이다. 즉 백제가 馬韓主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내부적으로 정통성을 확보하여 마한 세력을 제어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중국과의 교섭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역시 372년 백제라는 명칭으로 진과 교섭하는 것은 마한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57) 위가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고구려와 남방의 韓族에 의한 양 방면의 적대 진영에 포위될 염려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文安植, 2000, 앞의 책, 66쪽). 물론 이럴 개연성도 있긴 하지만, 공손씨 정권을 타도한 위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고구려를 대대적으로 정벌한 예에서와 같이 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타협의 배경은 먼저 위의 국내 상황과 백제를 중심으로 한 韓 세력의 완강한 저항에서 그 요인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력에 대한 통제는 위의 입장에서 보아 공손씨 정권이나 고구려의 정벌같이 매우 비중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위는 공손씨 정권을 붕괴시킬 때에 촉과 오의 동향을 고려하여 속결전으로 진행하였다.⁵⁸⁾ 이는 공손연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2군을 먼저 점령한 것에서 증명된다. 고구려의 경우 유주자사 관구검의 지휘 아래 공격을 하였지만 끝내 붕괴시키지 못한 것은 장기전의 부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위가 이들 지역을 정벌한 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촉·오와의 연동성 속에서 배후인 요동 지역의 안정 확보에 우선적인 목적이 있었다. 이의 연장선에서 漢 군현의 관할권 조정과 이에 따른 韓 세력에 대한 통제까지도 시도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韓 세력이 저항이 격렬하였고, 이러한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그 여파가 고구려뿐만 아니라 요동 지역까지 미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일단 요동 지역이 안정된 이상 한반도 지역까지 대대적인 정벌을 하여 힘을 소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위의 중앙정부에서는 正始 10(249)년 司馬懿가 京城에서 정변을 일으켜 종실인 曹爽 일당을 타진하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와 같이 사마의가 기리영 전투의 종결 시점과 가까운 시기에 정변을 일으켰다는 것은 바로 그 직전의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국외의 일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사마의가 정권을 잡으면서 대외 관계가 소극적인 정책으로 바뀐 점은 감지되고 있다.⁵⁹⁾ 따라서 위의 중앙정부에서 한반도까지 신경을 쓰기에는 무리한 상황이었다고 보이며, 일단 요동 지역을 안정시킨 이상 그 이남에 있는 韓 지역의 소요를 진정시키는 것이 최상의 방안이었을 것이다. 백제를 위시한 韓 세력 또한 강대한 군현을 상대로 전투를 계속하기에는 버거웠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양자는 서로 타협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⁶⁰⁾ 이와 같이 양자가 타협하였다면 기리영 전투를 주도한 세력은 그 세력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漢 군현의 외압을 막아내었다는 점에서, 한반도 내에서 주도권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⁶¹⁾

이후에도 위의 국내 상황은 사마씨의 정권 장악에 대한 반발이 이어져, 한반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사실상 힘들게 하였다. 즉 嘉平 3(251)년에는 태위 王凌이 회남에서, 6년에는 李豐과 張緝 등이 경성에서 사마씨를 타도하려 하였다. 그리고 正元 2(255)년에는 串丘儉이 회남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甘露 2(257)년에는 諸葛誕이 회남에서 모반하였다. 이처럼 계속된 반란은 사마씨가 정권을 장악하는 데 일어난 반발로, 이러한 국내의 상황과 촉·오 등과의 계속된 대결 또한 한반도 지역까지 신경을 쓸 여유가 없

58) 金容範, 1986, 앞의 책, 24쪽.

59) 金容範, 1986, 앞의 책, 30-31쪽. 이와 관련된 사료는 다음과 같다. 姜維問於(夏侯)霸曰 司馬懿既得彼政 當復有征伐之志不 霸曰 彼方營立家門 未遑外事(『資治通鑑』 75 嘉平元年條).

60) 그 타협안은 위에게는 명분을, 韓 세력에게는 실리를 취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백제 측이 백성들을 돌려준 것은 전쟁 발발의 사회 성격으로 보이지만 위에서는 이를 항복한 것으로 자위할 수도 있다. 또한 위는 반대 급부로 그 대가를 주었을 것이다. 이에 백제 측에게 전쟁의 책임을 묻지 않고, 韓 지역 내에서의 우월성을 공인해주는 등 여러 가지를 상정할 수 있겠다.

61)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기리영 전투를 수행한 진충이 이후 좌장에서 右輔로 승진한 사실은 전쟁의 결과가 백제에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는 견해는 주목된다(김수태, 1998, 앞의 논문, 195쪽). 필자는 한 걸음 나아가 漢 군현의 외압을 막아냈다는 점에서 백제가 실질적으로 승리한 것으로 보이며, 진충의 승진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위가 삼국의 대결 구도와 정권 다툼으로 대외 관계에 점차 소홀해졌다면, 이는 바로 한반도 내에 있는 漢 군현이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313년과 314년 연이어 벌어진 한 軍현의 한반도 축출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한 軍현은 독자적인 활로를 모색해야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대방군의 경우 실제 부중사 오림이 우려했던 데로 친백제 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 D-1. 고구려가 대방을 치니 대방이 우리에게 구원을 청하였다. 이에 앞서 왕이 대방의 왕녀 寶菓에 장가를 들어 부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말하기를 대방은 우리와 사돈의 나라이니 그 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드디어 군사를 출동하여 구원하였고 고구려는 원망하였다(『三國史記』 24 百濟本紀 2 責稽王 卽位條).
- 2. 가을 9월에 漢나라가 백인과 더불어 침략해오니 왕이 나가 막다가 적병에게 살해되어 죽었다(『三國史記』 24 百濟本紀 2 責稽王 13年條).
- 3. 봄 2월에 몰래 군사를 데리고 낙랑의 서쪽 현을 습격하여 취했다. 겨울 10월에 낙랑태수가 보낸 자객에게 살해되었다(『三國史記』 24 百濟本紀 2 汾西王 7年條).

위의 기사에 따르면 백제는 대방과 혼인을 하는 등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⁶²⁾ 반면에 낙랑과의 관계는 매우 적대적이다. 먼저 낙랑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위의 사료 D-2에 보이는 漢은 낙랑 세력을 지칭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이를 감안하면 책계왕과 분서왕은 모두 낙랑에 의해 피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낙랑이 계속 백제에 적대적 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은 확인된다.

하지만 대방은 낙랑과 달리 백제에 우호적이었다. 이와 같이 낙랑과 대방은 같은 漢 軍현임에도 불구하고 대외 정책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는 바로 漢 軍현이 각기 다른 활로를 모색한 것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장에서 제기한 2군의 성격이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은 확인된다. 이는 2군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낙랑은 위의 대외 정책이 소극적으로 돌아섰지만, 오랜 전통 속에서 자체적인 존립이 어느 정도 가능하였다. 하지만 대방의 경우 공손씨 정권의 후원 하에서 韓 지역의 통제를 기반으로 성립하였기 때문에, 그 존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위는 대방군이 공손씨 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軍현이라는 점에서 대방군 소속의 진한 8국을 낙랑으로 이관시켰다. 이로 말미암아 대방군의 축소는 당연한 것이었다. 더욱이 위의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토착 세력이 약한 대방군이 韓 세력의 위협을 감당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이에 대방의 지배 세력은 親百濟的인 노선을 취함으로써 자구책을 모색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반도에서 유력한 세력으로 등장한 백제와 우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실리적인 방안이었다. 앞의 사료 D-1에 보이는 것

62) 고이왕이 肖古王의 母弟인 점과 재위 기간이 53년인 점을 감안하면, 책계왕의 즉위 당시의 나이는 결코 적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그가 대방 왕녀와 혼인한 시점은 즉위 해인 286년을 기준으로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경우 백제와 대방과의 혼인은 고이왕 13(246)년 벌어진 기리영 전투 이후 漢 軍현과의 관계를 고려한 정략적 결혼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된다.

처럼 고구려가 대방을 공격하자, 백제가 이를 구원한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백제 또한 중국 군현의 권위를 빌어 마한의 여러 세력을 쉽게 복속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대방군과 韓 세력과의 결탁 가능성을 부중사 오림은 우려했으며,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그 지리적인 여건과 정치적인 성향을 고려하면 이미 예견할 수 있는 것이었다. 다만 대방군은 이미 약화되었기 때문에, 韓 세력을 배경으로 성장하기에 역부족이었다는 점이 다르다.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위의 관할권 조정 문제가 2군의 균형을 취함으로써 배후의 안정을 취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고, 아울러 한의 통제 또한 도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확인된다.

V. 맺음말

이제까지 필자는 기리영 전투를 위의 對韓政策과 백제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이에 따르면 위가 韓 세력에 개입한 것은 일련의 동방 정책과 관련이 있지만, 韓 세력은 배후의 커다란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양자가 타협을 하게 되고, 이를 주도한 백제는 실질적인 승리를 거둠으로써 마한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미력하나마 그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제 2장에서는 기리영 전투에 대한 쟁점 사항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리영 전투는 대상국의 貳記와 貳譯일 가능성을 제기한 견해도 있지만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가능성은 없다고 보았다. 또한 ‘臣智激韓忿’과 ‘臣憤(憤)沾(沾)韓忿’이란 상이한 판본은 역시 커다란 문제가 없는 한 통행본인 ‘臣智激韓忿’을 따른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명대에 여러 판본이 존재하였을 가능성과, 통행본이 비교적 오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또한 紹興本은 小國名이 ‘臣憤沾國’이지만 기리영 전투의 주체로 ‘臣憤沾’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이 많았다. 『通志』는 양자가 일치하여 신분고국을 주체로 볼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역으로 편찬자가 신분고국을 기리영 전투의 주체로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줄 뿐 원 사료에 가까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신지를 기리영 주체 세력으로 볼 경우 목지국 진왕설과 신분활국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목지국설은 진왕이 현실적으로 마한을 아우를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한 점과 위치가 멀리 떨어졌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떨어졌다. 신분활국설 또한 애초에 주목하게 된 배경이 목지국 진왕과의 관련 속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를 분리해야 그 실체에 접근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신분활국설은 당시 경기 북부 지역에서 우월성이 입증된 백제와의 관련 속에서 고찰해야 될 문제라고 보았다. 백제를 주체로 보는 설은 가장 큰 걸림돌이 마한 세력을 멸망시켰다는 기사이었다. 그러나 이는 다른 각도에서 해석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기리영 전투를 마한 세력의 쇠퇴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백제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하기 위해 먼저 위가 漢 군현에 개입한 의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바로 공손씨 정권이 요동 지역에서 독자적인 정권을 유지하며, 오와 등거리 외교를

시도하는 데 따른 불안감에서 출발하였다. 삼국의 항쟁 기간이 치열한 시기에 위는 공손씨 정권에 개입할 수 없었지만, 축·오와의 전투에 여력이 생긴 238년 신속하게 배후의 위협 세력인 이를 붕괴시켰다. 고구려 또한 서안평을 공격하는 등 잠재적인 위협 세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245-246년에 걸쳐 관구검을 파견하여 정벌하였다.

하지만 韓 세력에 대한 위의 개입은 이와 성격이 달랐다. 관구검을 토벌할 때 먼저 2군을 평정하였듯이, 공손씨 정권의 배후 세력으로서 漢 군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대방군은 공손씨 정권이 출범시킨 군이었다는 점에서 비대해진 대방군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다. 주의 속관으로 감찰 기능을 가진 부종사 오림이 파견된 것은 바로 군현의 균형 유지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러한 관할권 조정은 또한 토착사회에 대한 견제도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위의 의도에 韓 세력이 반발한 것은 당연하였다. 그리고 그 가장 큰 피해 지역은 교역로 상에 위치한 한강 이북 지역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이미 우월성을 확보한 백제가 기리영 전투를 이끌었던 것은 타당함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제 4장에서는 기리영 전투의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제까지는 기리영 전투를 韓 세력의 패배로만 보았기 때문에, 이 시점에 쇠퇴한 것으로 보이는 목지국이나 신분활국을 주체 세력으로 상정하는 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하지만 위가 韓을 멸망시켰다는 기사는 위 측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할 뿐으로, 실제 마한이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위의 과장은 확인된다. 더욱이 위가 원래 韓에 개입한 의도는 배후 세력의 안정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이 커다란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이들과 전면전을 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국내에서 권력 투쟁이 심화되고, 축·오와의 계속된 전쟁 등 여러 면에서 대외 정책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 이를 살펴보면 위의 관할권 조정은 공손씨 정권과 고구려 정벌에 이은 배후 세력의 안정 확보에 중점을 두었을 뿐 對韓 지배정책은 부차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위가 곧바로 소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하자, 2군은 각기 활로를 모색하였다. 먼저 낙랑군은 지배 세력이 오랜 전통을 가졌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존립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대방군은 지배 세력의 기반이 약하였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유력한 세력으로 등장한 백제와 우호 관계를 맺는 방향에서 자구책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대방과 백제와의 결합은 부종사 오림이 우려한 것으로, 관할권을 변경한 의도가 대방군에 대한 견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이러한 양자의 결합으로 대방군은 백제의 구원을 받은 반면 백제 또한 대방군의 권위를 이용해 주변을 평정해 나가는 데 유리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관계를 고려하면 漢 군현의 한반도 축출 이후 대방 세력이 백제에 많이 귀화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다.